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를 나타내는 표시.

아버지가 오늘 어디에 왔고 그가 만나려고 온 자들이 모두 누구인지 너희는 아느냐? 너희를 만나려고 그는 특별히 어떤 모습으로 왔느냐? 아버지의 형태가 곧 그의 자녀들의 형태다. 그러니 너희 모두를 만나려고 아버지가 어떤 형태로 왔는지 아느냐? 신이 여러 가지 형태를 가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은 그릇된 것이냐, 아니면 옳은 말이나? 지금 이때에 아버지는 여러 관계의 여러 가지 형태로 너희들을 만난다. 따라서 그의 관계들과 그의 과업들을 토대로 그는 실제로 여러 형태를 지닌다. 그러므로 신봉자들의 말이 옳지 않느냐? 오늘은 아버지가 너희들을 만나려고 어떤 형태로 왔느냐? 그는 어디서 너희를 만나고 있느냐? 오늘 멀리에서 (그 날 아침 멀리) 너희들은 그 관계에 대해 들었다. 그러니 아버지는 누구이고 자녀인 너희들은 누구냐? 오늘 영적으로 사랑받는 이가 영적으로 사랑하는 이들과의 만남을 축하하려고 왔다. 너희를 만나려고 그가 어디에 왔느냐? 전체 모든 장소들 중에서 최고로 사랑받는 만남의 장소는 무엇이나? 너희들에게 사랑받는 영적인 분이 초창기에 사랑하는 자인 너희들을 어디로 데려가곤 했는지 기억하느냐? (바다입니다.) 그래서 모든 보물들과 미덕들로 충만한, 영적으로 사랑받는 이는 오늘도 역시 서늘한 달빛을 받으며 영적으로 사랑하는 자인 너희들을 고귀한 단계의 산 위에서 뿐 아니라 대양의 해안에서도 만나고 있다. 대양은 충만함을 상징하고 산은 높은 단계를 상징한다. 달빛은 한결같이 차분한 성질을 상징한다. 세 가지가 모두 함께 있다. 오늘 영적으로 사랑받는 이는 영적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보며 즐겁다. 너희들은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느냐? (모두들 각자 고유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보통 한 번에 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만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모든 이의 노래를 동시에 다 들을 수 있다. 사랑하는 자인 너희들은 각자의 노래를 부르고 있고 사랑받는 이는 그 노래들에 응답하고 있다. 너희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든 그 모두가 다 좋다. 각자의 사랑의 말 (노래 가사)을 아버지는 사랑으로 듣는다. 사랑하는 너희들이 사랑스러운 이를 기억하기는 쉽지 않느냐? 영적으로 사랑하는 너희들은 사랑스러운 이를 쉽게 끊임없이 기억하는 관계를 가진다. 너희는 그를 특별히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설령 그를 잊으려 한다 해도 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 바바는 사랑하는 자들 모두에게서 사랑을 보았다. 그밖에 그가 또 뭘 보겠느냐? 사랑하는 너희들은 수가 많고 사랑받는 이는 한 분 뿐이지만 너희들 각자 경험에서 우러나 “내가 사랑하는 분”이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영적으로 너희들의 사랑을 받는 분은 사랑의 대양이기 때문이다. 대양은 무한해서 사랑하는 자인 너희가 아무리 많아도 너희 모두 원하는 만큼 한껏 가져갈 수 있고, 그래도 대양은 언제나 끝이 없고 가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덜 받는대거나 너희가 더 많이 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가져갈 자들은 각자 원하는 만큼 한껏 취할 수 있다. 사랑의 보물창고가 흘러 넘치고 있다. 하지만 취하는 자들은 가져가는 데서 등수대로인 반면, 주고 있는 분은 최고의 사랑을 준다. 취하는 자들은 가져가는 것이 뭐든 그것을 수용하는 데서도 역시 등수대로다. 너희는 각자 사랑하는 방법을 알지만 그 사랑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데는 등수가 있다. 너희들 모두 “나의 사랑을 받는 분”이라고, “나의”라 하면서도, 너희는 뭘 하느냐? 너희가 뭘 하는지 아느냐? 오늘은 바바가 멀리를 돌려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려고 왔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뭘 하는지 얘기해봐라. “나의 것”이라 하면서도 너희는 때때로 여기에 오기 전에 순회여행까지 한다. 그러다 여행하느라 지치면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분”이라고 얘기한다. 사랑하는 자들 중 일부는 크게 말썽을 부린다. 너희는 어떤 말썽을 일으키느냐? (디디와 다디에게 말씀하심.) 그들은 육신의 형태인 너희들 앞에서 말썽을 많이 부리지 않느냐? 너희들은 참으로 많은 말썽을 일으킨다! 너희는 “저는 이 일을 해요, 저는 늘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만 저를 변화시키는 것은 당신의 의무입니다. 이게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라 한다. 너희는 아버지가 너희에게 얘기한 것을 아버지에게 얘기함으로써 말썽을 빚는다. 너희들은 “제가 무엇이든, 제가 어떠하든,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라는 말을 아주 잘 기억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분도 “그래, 너희는 나의 것이다, 그렇지만 최소한 완벽하게 어울리는 짝이 되어라!” 라고 대답한다. 만일 부부가 서로 잘 어울리지 않는다면 그들을 보는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사랑받는 분은 참으로 아름답게 치장되어 있는데, 사랑하는 자는 전혀 아무런 치장도 되어 있지 않구나! 그것이 옳게 여겨지겠느냐? 이러하니 너희 자신에 관해서 “그는 빛나는 옷을 입었는데, 그를 사랑하는 자는 검거나 얼룩에 찌든 옷을 입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이 보기에 좋겠느냐? 어찌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 다음에 너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한테서 얼룩을 없애주는 것은 당신의 의무예요.” 하지만 사실 사랑스러운 분은 너희의 옷을 변화시키는데, 너희들은 어째서 그 옷을 입지 않느냐? 너희는 그 얼룩을 제거하는 데 왜 시간을 낭비하느냐? 사랑스러운 분에게 속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변했다는 뜻이다. 그토록 심하게 얼룩진 너희의 낡아빠진 검정색 옷을 왜 기억하느냐? 어째서 그것을 자꾸자꾸 입느냐? 어째서 빛나는 옷을 입고 치장된 상태 그대로, 빛나는 세계에서 너희가 사랑하는 분과 함께 머물지 않느냐? 거기서는 아무것도 얼룩질 수가 없다.

그러한즉,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받는 이와 한결같이 대등하게 충만하며 끊임없이 빛나는 상태에 머물러라. 이 말은 즉 너희의 완성된 형태에 안정해 있으라는 뜻이다. 사랑받는 이는 한 가지를 더 노력해야 한다. 너희는 그가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 아느냐? 그것도 재미있는 일이다. 너희들에게 사랑받는 분이 너희들 모두를 직접 데리고 집에 돌아가겠다고, 사랑하는 자인 너희들에게 이미 약속했는데, 그런데도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사랑받는 이는 매우 가볍고, 사랑하는 자들인 너희는 아주 무거워서 너희를 직접 데리고 돌아가기 위해서 그는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그러니 그런 커풀이 옳게 여겨지겠느냐? 사랑받는 이는 “가벼워져라!” 라 하는데 너희는 어찌 하느냐? 너희는 가벼워지기 위해서 의당해야 할 방식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가벼워질 수 있느냐? 너희는 영적인 훈련을 알고 있지 않느냐? 한 순간 무체가 되고, 한 순간 아비약트 천사가 되고, 한 순간 육신의 형태로 카르마 요기가 되고, 한 순간 세계의 봉사자가 되는 것, 이 모든 것 중에서 1초 이내에 무엇이든 되는 것이 너희들의 영적인 훈련이다. 너희들 스스로 가외로 어떤 무게를 짊어지느냐? 너희는 낭비로 인해 무게를 많이 불리므로 가벼워질 수가 없다. 일부 어떤 자들은 허비해 버린 시간으로 무게를 불리고, 일부는 낭비된 생각에서, 일부는 낭비된 힘에서 무게가 불어난다. 일부 어떤 자들은 낭비적인 관계와 접촉을 가진다. 그 모든 다양한 방법으로 무게를 불리는 탓에 너희는 사랑받는 분처럼 더블 라이트가 될 수 없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사랑스러운 분과 대등해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그가 어떠했고 그가 무엇이었던지 사랑스러운 분처럼 됨으로써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표시가 난다. 그러면 너희들은 모두 누구냐? 너희는 어쨌든 사랑하는 자들이지만, 너희는 사랑받는 분과 대등한, 사랑하는 자들이냐? 오직 대등함만이 가까움을 가져올 수 있다. 대등하지 않으면 가까워질 수 없다. 왕비를 1만 6천명 두었다는 칭송이 있다. 그 1만 6천명 가운데도 등수가 매겨져 있지 않았겠느냐? 한 분 뿐인 사랑스러운 이가 그토록 많은 사랑하는 자들과 더불어 묘사되어 왔지만 그 의미는 이해되지 않았다. 영성은 이미 잊혀졌다. 그래서 오늘 영적으로 사랑받는 이가 사랑하는 자들인 너희에게 이르는데, 대등해져서 가까이 와라. 앗차.

너희들은 달빛 아래 앉아 있다. 차분한 너희의 형태로 머문다는 것은 달빛 속에 앉아 있다는 의미다. 끊임없이 달빛을 받으며 머물러 있어라. 달빛 속에서는 너희의 옷이 자동적으로 빛날 것이다. 어디서 너희를 보든 너희는 광채를 발하는 모습으로 보일 것이다. 대양의 해안에 한결같이 머물러 있어라. 이 말은 대양처럼 충만한 너희의 단계를 끊임없이 지속하라는 뜻이다.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할지 이해하느냐? 사랑스러운 분은 이 해안을 사랑한다. 앗차.

변함없이 사랑스러운 분과 같아져라. 손으로 그의 손을 잡고 늘 그와 함께 해라. 이것이 바로 사랑하며 협조한다는 뜻이다. “동반”은 사랑을 의미하고 “손”은 협력을 의미한다. 사랑스러운 한 분에게만 속하고 다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단계를 쉽게 지속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영적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사랑받는 이로부터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오늘 델리와 구자라트 출신들이 왔다. 너희 델리 출신들은 자무나 강의 강둑은 너희에게 있지만, 대양의 해안은 너희에게 없다고 느끼지는 않을 테지? 합류시대에는 대양이 있고, 미래에는 강둑이 있다. 합류시대에 너희들은 대양의 해안에서 논다. 따라서 합류시대에는 대양의 해안이 있고 미래의 것들은 자무나 강의 강둑에 있다. 그러면 델리와 구자라트는 서로 무슨 관련을 가지느냐? 델리는 자무나 강의 강변이고, 구자라트는 그들이 가르바 (원을 이루며 추는 춤)를 추는 곳이다. 자무나 강의 강변에서의 춤은 매우 유명하다. 이런 이유로 델리와 구자라트 양쪽에서 모두 왔다. 앗차, 외국에서도 왔다. 외국인들은 그리로 여행 오라며 여기 출신들을 초대한다. “디디는 오셔야 해요! 다디는 오셔야 됩니다! 아무개는 오셔야 해요!” 너희가 단기간의 여행을 떠나듯이 미래에도 너희는 여행을 할 것이다. 너희는 1초면 거기에 도착할 것이다. 사고는 결코 일어나지 않으므로 가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속도제한이 필요하지 않다. 어디든 단 하루에 갈 수 있다. 하루에 온 세상 전체를 돌며 여행할 수 있다. 이 원자력은 너희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더욱 정교하게 하느라고 분주하다. 그 힘이 사람인 너희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 어느 원소가 가장 큰 도움을 주겠느냐? 태양이다. 태양 광선은 갖가지 놀라운 경이로움을 보여줄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이 모든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스나 석탄을 태우거나 나무를 땔 필요는 없을 것이다. 너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앗차. 너희들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볼 것이다. 그들은 노력하고 너희는 결실을 먹을 것이다. 그때에는 너희가 이런 전선 등을 연결하려고 노력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아무런 노력 없이도 너희의 타고난 성질로 너희는 자연스럽게 성취할 것이다. 그렇지만 자연히 그러한 행복을 경험하려면 너희가 본래 타고난 성질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한다. 오직 그제야 너희는 비로소 자연에서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연스러운 성질”이란 너희의 영원한 산스카르라는 뜻이다. 그것에 관한 말을 듣기만 하면서도 너희는 이것을 즐기고 있다. 그러니 보상을 경험할 때는 너희가 그것을 얼마나 즐기겠느냐? 여기서 새들이 날아다니듯이 거기서는 비만들이 날아다닐 것이다. 비만이 몇 대나 있겠느냐? 새들이 일렬로 떼지어 나는 것처럼 비만들은 무리지어 함께 날 것이다. 한 대가 이륙하고 있을 때 다른 한 대는 이륙할 수 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 그들은 다양한 문양을 이루며 비행할 것이다. 왕족들은 그들만의 의장을 이루며 비행하고 부유한 백성들은 그들의 고유한 의장을 이루며 비행할 것이다. 너희는 원하는 곳 어디든 착륙할 수 있다. 지금 물질을 정복해라, 그러면 그것이 거기서 너희의 하인들이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 물질을 확실하게 많이 정복하지 못하면 거기서 물질은 너희를 별로 섬기지 않을 것이다. 이해하느냐? 앗차.

밥다다가 마두반 니와시들을 만나심.

마두반 주민들은 누구냐? 마두반의 거주자인 너희에게 어떤 칭호를 주어야 합당하겠느냐? 새로운 호칭을 생각해봐라. 지금 이때에 너희는 마두반에 무엇을 가져다놓았느냐? 너희는 얼마 전에 복사기를 한 대

들어놓았다. 그러므로 마두반의 거주자인 너희들은 복사된 복사본이다. 아버지와 자녀들은 같다. 그 기계로 모든 것이 똑같이 복사된다. 그 기계의 특별함은 원본과 조금도 차이가 날 수 없다는 데 있다. 마두반 주민들은 복사판들이다. 마두반은 기계이며 마두반 주민인 너희들은 사진이다. 행하는 모든 행위로 너희는 행운의 공여자가 그어준 너희들의 행운의 선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너희들의 행운의 선은 너희의 행위에 의해 그어진다. 따라서 너희 각자가 행하는 행위 하나 하나는 너희에게 고귀한 행운의 선을 그을 만한 것이어야 한다. 밥다다가 행한 모든 행위가 그 자신과 남들을 위해 행운의 선을 그은, 그러한 것이었듯이 너희도 같은 방식으로 아버지와 같아져야 한다. 너희는 참으로 많은 편의시설들과 엄청난 협조를 얻었고 또 마두반에서 너희에게는 참으로 고귀한 동반이 있고, 마두반이라는 보물창고에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모든 것을 이미 다 얻은 이는 무엇이 되겠느냐? 그는 가득해지지 않겠느냐? 여전히 결여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만일 너희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너희들 자신의 다르나가 결여되어 있다. 마두반 주민들에게는 한 가지 영원한 산스카르가 나와 있어야 마땅하다. 그것이 어느 산스카르냐? 아버지 브라마가 뭘 하든 성공하게 만든, 어떤 영원한 산스카르를 그는 갖고 있었느냐? 너희들도 모두 바로 그 산스카르를 가질 필요가 있다. “하 지” (네 물론입니다)라고 말할 뿐 아니라 그는 또 언제나 “당신 먼저!”라고 했다. 그 자신을 앞세운 적이 결코 없다. 그는 언제나 남들을 먼저 가게 했다. 아버지 브라마는 항상 자가담바를 그보다 앞세웠고 어디를 가든 그는 만사에 자녀들을 그의 앞에 두었다. 그는 자가담바를 그의 앞에 세웠다. 남들을 먼저 가게 하는 자들만이 “하 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주된 것은 남들을 먼저 가게 하는 것인데, 그러나 순수한 느낌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단지 그것 때문뿐 아니라 잘 되기를 빌려 주는 느낌으로 해야 한다. 너희가 좋은 염원과 고귀한 느낌을 토대로 남들을 너희 자신보다 앞세울 때 너희는 먼저 간다. 남들을 먼저 가게 하는 것은 1등을 차지한다는 뜻이다. 아버지는 자가담바를 그보다 앞세웠고, 언제나 자녀들을 그의 앞에 세웠는데, 그러면서도 그가 1등을 차지했다. 이것에 그가 이기적인 동기를 가진 일은 없다. 그는 언제나 전적으로 이타적이었다. 그는 남들을 먼저 세우는 것을 실제 시범으로 보였다. 마찬가지로 “당신 먼저”라는 너희의 학과목은 아주 확고해야 한다. 다른 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너희가 그것을 했어야 한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다. “왜 이 사람이 이 일을 했지? 오직 나만 이걸 해야 해. 내가 이걸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지? 내가 이걸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런 느낌이 없게 해라. 상대방이 뭔가를 하든 너희가 그걸 하든, 어쨌든 그것은 아버지를 위한 봉사다. 너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제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 사업은 아버지 한 분의 사업뿐이다. 너희들은 신을 위한 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너희는 심지어 편지에도 “신을 위해 봉사하는 아무개”라고 쓴다. 너희가 “나를 위한 봉사”라고 쓰지는 않을 테지? 아버지가 한 분이듯이 봉사도 역시 그러하다. 그러므로 다른 누가 뭘 하든 너희가 뭘 하든, 그건 다 마찬가지다. 누가 어떤 일을 아무리 많이 하든 그를 앞세워라. 너희가 앞서 가야 한다는 느낌은 갖지 마라. 남들이 앞서갈 수 있게 해줌으로써 너희 스스로 앞서가게 해라. 너희 모두 함께 집에 돌아가야 한다. 너희들은 모두 아버지와 함께 집에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은 곧 너희들 모두가 함께 가리라는 뜻이다. 너희들 각자가 이 느낌을 가질 때 너희는 이미 아버지 브라마의 복사판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누구든 마두반 주민을 보는 이는 브라마 바바를 보게 되리라는 뜻인데, 왜냐하면 너희들 각자가 복사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아버지 브라마를 못 봤다는 말은 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들의 행위와 너희의 단계가 아버지 브라마를 분명하게 드러내게 해라. 이것이 바로 마두반의 거주자인 너희들의 특별함이다. 따라서 너희들 각자가 마스터 브라마다. 브라마 바바의 사진을 받은 이는 누구든 사랑으로 그것을 아끼며 돌본다. 그는 그것이 모든 선물들 중에서 최고의 선물이라고 여긴다. 따라서 너희들도 모두 아버지 브라마의 사진이 되어야 한다. 아버지 브라마와 똑같이 되어라, 그러면 너희는 또한 값을 매길 수 없이 귀중한 선물이 될 것이다. 앗차.

Blessing: 진심에서 우러난 타파샤로 충족감의 증명서를 차지함으로써 모든 이에게 축복 받을 권리를 가져라.

타파샤의 차트에서 제 자신에게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자들이 많다. 그러나 너희는 오직 진심에서 우러나 타파샤를 할 때, 진심으로 모든 이에 대해 사랑을 가질 때, 도구라는 의식과 순수한 의도를 가질 때만 모든 이를 충족시킨다는 증명서를 차지할 수 있다. 그런 자녀들은 모든 이에게 축복 받을 권리를 차지한다. 최소한 95%의 영혼들이 너희에게 충족되었다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모든 이의 입에서 너희가 1등이라는 말이 나올 때, 모든 이의 진심에서 우러난 축복의 증명서를 차지하는 것이 아버지와 대등해지는 것이다.

Slogan: 너희의 시간을 더 없이 귀중하다 여김으로써 보람 있는 방식으로 그것을 써라, 그러면 너희는 어느 때든 결코 기만당하지 않을 것이다.

*** 옴 산티 O M S H A N T I ***